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://www.emerics.org/ 2019. 02. 28. 중남미	「동향세미나」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제재에 따른 영향 작성 권혁주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유럽팀)
--	---

- 미국은 지난 1월 28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*Petróleos de Venezuela(PDVSA)*를 특별지정기업(SDN)¹⁾ 명단에 추가함.
- 미 재무부는 해당 제재를 통해 PDVSA의 미국 관할 내 자산을 동결시켰으며 미국 국적의 개인/기업이 PDVSA와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.
 - 미국 기업 등은 오는 4월 28일까지 PDVSA와 거래는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지불 금액을 PDVSA 계좌가 아닌 별도로 미 정부가 개설한 에스스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.²⁾
 -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관련된 제재를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.
 -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이면서도 원유 및 석유제품을 꾸준히 거래해왔음.
 - 이전에는 PDVSA의 미국 금융산업/상품 접근 차단이나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투자를 제재한 적이 있지만 원유 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.
- 미국이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노리기 위한 것임.
-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5월 20일 치러진 대선을 통해 재임에 성공했지만 반대파들은 이를 공식적인 선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함.
 - 미국은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시작한 차베스 대통령 정부(1998.12~2013.3)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여 해당 정권을 사실상 물려받은 마두로 대통령과도 대립 관계를 지속
 - 지난 1월 23일 과이도(Juan Guaidó)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연설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은 대선에서 선출된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식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본인이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함.
 - 해당 선언 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들과 리마그룹³⁾은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국가 수장으로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.
 - 미국은 과이도 지지와 더불어 미-베네수엘라 간 원유거래를 차단하며 마두로 정권이 교체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군부의 지지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고 과이도 의장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임.
 -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마두로 체제를 지지함.

1)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

2) 4월 28일 이후 PDVSA와의 거래는 전면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며,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이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임.

3) 캐나다와 주요 13개 중남미 국가으로 구성된 그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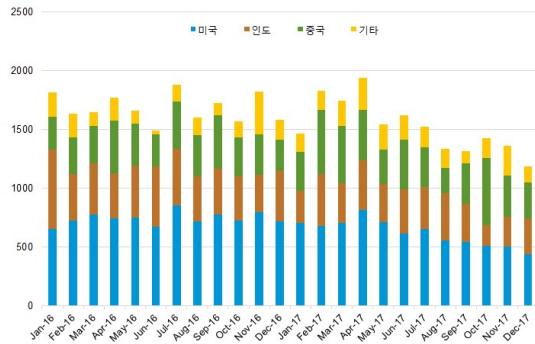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관련 제재는 양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- 베네수엘라 경제는 원유 및 석유제품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미국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.
 - 베네수엘라의 전체 원유수출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%임(그림 1 참고).
 - 미국 이외에도 인도와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상당하지만 미국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 -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른 국가로의 대체 원유 수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임.
 - 현재 기준으로 중국과 러시아로의 수출량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두 국가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현물로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수익 비중이 높지 않음.
 - 중국, 러시아와 더불어 인도 수출량을 늘리는 방안도 존재하지만 미국 대비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어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할 것임.
 - 더구나 중국을 비롯하여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릴 국가는 적을 것으로 보임.
 - 미국 역시 제재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 -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중질유로 미국 대형 정유기업들은 중질유와 경질유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가 차단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.
 - 캐나다나 다른 국가로부터의 중질유 수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송유시스템으로 인해 수입가격은 베네수엘라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.
 - 더구나 미국은 자국산 경질유와 더불어 석유제품을 베네수엘라에 수출하고 있어 제재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미국도 경험하게 될 것임.
 -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OPEC을 비롯한 원유생산국가들의 전략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.
 -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은 약 141만 b/d⁴⁾로 전세계 생산량의 1.7%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(그림 2 참고).
 -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향후 18개월 이내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은 현재의 50~60%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량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.

EMERiCs

4) 2018년 9월말 기준 연간 평균 생산량

그림 1. 베네수엘라 원유수출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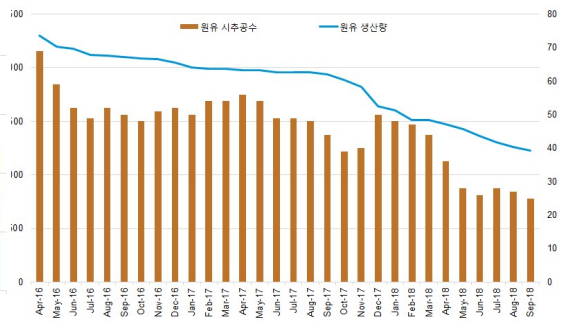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 b/d)



자료: EIA

그림 2.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 및 원유
시추공수

(단위: 천 b/d, 개)



자료: EIA, Baker Hughes.

참고자료

CRS, EIA, Wall Street Journal, 미 재무부 등